

레드리본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별, 성별로 한 명씩 에이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싣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그 세 번째로 30대의 생각을 들어본다.

# AIDS 對 AIQS

글 | 서안임 · 주부

연휴를 이용해서 영화 <너는 내 운명>을 보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 외에는 영화에 대한 별다른 사전정보 없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만 믿고 덤석 비디오를 빌려온 남편과 함께 플레이를 즐겼는데,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차 심방스러움과 함께 혐오감마저 들기 시작했다.

영화는 어느 시골마을의 노총각 김석중이 동네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 은하를 보고 첫 눈에 반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리 영화라지만 티켓을 팔아 성행위를 하고 중국에는 에이즈에 감염되기까지 하는 은하의 메스껍고 낯뜨거운 운명이 직니라하여 싫었거니와 그런 여자의 사정을 낱낱이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보는 것을 포용하는 노총각의 순애보가 사뭇



안쓰러워서 자꾸 시선이 화면을 벗어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시선을 잡아 끌었으니 그건 바로 여 주인공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골 마을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두 모여서 피를 뽑고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장면이었다. 에이즈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지 어언 20여년이 흘렀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상식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범취 선 흑백사진과도 같았다.

“이게 걸렸다 하면 탁! 죽어버린다잖

아요.” “살이 썩는데요.” “모기가 병 옮기듯이 우리가 밥만 같이 먹어도 걸린다네요.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등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남편과 마주보고 실소를 흘렸지만, 다시금 생각해보면 아직 일반인들의 에이즈 상식이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에이즈를 잘 알지 못한 일반 대중의 편견은 오해와 착각의 프리즘을 통해 무구한 선의의 감염인조차 성 문란자로 매도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 자고로 병은 알려야 처방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화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걸러서 창조해 낸 예리한 영상미나 가슴 찡한 순애보의 감동은 차치하고라도 세계 최저 수준의 분당별을 자랑하는 나라, IT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에이즈 상식 점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떠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모른다. 자고로 병은 알려야 처방을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에이즈에 관한 한 현실은 이와 한참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 외에는 국내 에이즈 환자 현황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요즘 아이들 그림책에 보면 아기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고 둘러대는 부모 뒤편에서 깔깔대고 웃으며 기성세대의 비근·리적 교육태도를 바웃는, 알 것 다 아는 조숙한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초등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성의 아름다움을 많은 조영 아래로 이끌어내는 상정벽해의 시대에, 서구화된 사회에 사는 아이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조기교육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에이즈는 분명 인류의 재앙이고 확실한 원치않이 발견되지 않은 난징이지만, 오래 전 우리 조상들이 마마를 호환보다 두려워하고 한센병 환자들 분봉이라 부르며 소복도에 귀양 보내어 경원시했던 전철을 기억해 볼 때 무엇보다도 정확히 가르치고 이해하여 지피지기(知彼知己)의 기초를 닦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에이즈 청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스갯소리로 AIDS(후천적면역결핍증)보다 무서운 게 AIQS(후천

적(Q결핍증)이라고 한다.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AIDS는 실제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뼈있는 농담이다. 가끔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는 비자발적 에이즈 감염 사례의 대부분이 헌혈 과정의 주사바늘이나 수술 과정의 수혈 등을 통한 것이라는 데, 감염 초기 잠복기간에는 증상이 없으며 나중에 감염 사실을 확인한다 해도 그때까지 헌혈된 혈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감염은 돌이킬 수 없다 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가끔 헌혈을 하고 오는 남편에게 “당신이 남 줄 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야 다 남 좋은 일 시킨다니까.”라고 고개를 설레 저었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바로 남편의 선의가 감염된 주사바늘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소름끼치는 생각에서였다. 이전 이런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지만,

끝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오해의 눈길을 기우고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배려하는 것과 똑 같은 정성으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선입견과 편견은 없는 병도 생기게 하고, 있는 병을 키우는 독버섯과 같다. 이런 노력을 통해 에이즈 청정국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